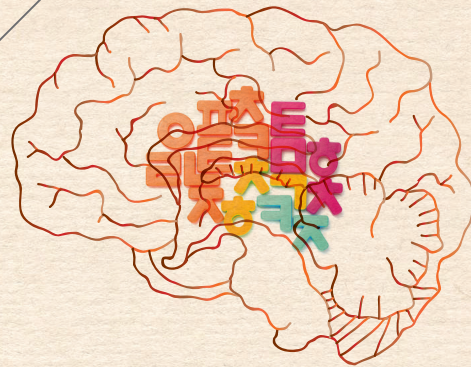


# 책, 타임머신

## 그리고 가상성



서 생존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한 언어의 상징으로 포착된 세계상을 만나는 행위가 바로 독서다. 상징으로 표현된 세계가 인지신경망 속에서 가상의 세계를 구성하고 우리는 뇌가 만든 이러한 가상의 설계도에 따라 자연을 조작한다. 책은 문자언어의 가상적 속성으로 공간구속에서 벗어나 무한히 변화가능한 자유도를 획득했고, 과거를 지금 현재에 드러내는 속성으로 영속성을 얻게 된다.

■ **템플 그랜딘**은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신문에서 뉴욕도서관 직원 한 사람이 지구상에서 영원불멸성이 존재하는 곳은 도서관뿐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도서관은 인류의 축적된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다. 나는 이 말을 현판에 적어 책상 위에 걸어 놓았다. 그 말 덕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박사학위를 따낼 수 있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글을 후대에 남김으로써 불멸성을 얻었다. 불멸성이란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

■ **생각**은 문자로 옮겨져 책이 된 후에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영원성을 획득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뇌 패턴에 나의 뇌 패턴을 결합하는 과정이다. 독서는 지난 수 천 년 간 형성된 명료한 논리의 패턴, 숭고한 감성의 패턴에 자신의 신경회로가 감전되는 행위이다.

■ **글쓰기를 통해서** 의식활동이 뇌 외부에서 편집과 집적이 가능해졌다. 책이야말로 연결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신경세포들 사이의 접속, 그 무수한 시냅스 춤의 기록이다. 문자라는 상징기호의 형태로 영원성을 획득한 시냅스 춤이 타인의 뇌 시스템에 동조될 때 새로운 생각의 흐름이 생기고, 전두엽의 판단 작

■ **인류의 문명**은 가상성을 추구한 언어의 결과이다. 흑요석 덩어리에서 많은 칼날을 상상하고, 동물의 가죽에서 옷을 상상하고, 숫자로 사물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인간은 자연적 사물을 뇌 속의 가상적 대상으로 만들었다. 또 언어와 문자로 만든 가상의 세계를 통하여 인류는 항상 변화하는 자연환경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 **책**은 다른 공간과 다른 시대의 인간 뇌속으로 여행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다. 책이라는 타임머신으로는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이 체험한 경험 내용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실재의 자연을 언어를 통해 구성된 가상세계로 구현하여 제한 없이 탐험하고 재구성하여 다시 문자로 표출하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무한한 가상의 세계를 만난다. 가상의 세계는 결코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 생성의 세계이며, 우리의 문화가 자연에서 생존가능성을 높여준 것은 실제 자연 환경을 뇌 속에서 인과적으로 연계된 가상의 이미지로 변환시켜 준 결과다. 결국 인과적 사고의 결과로 예측능력이 생겼으며 자연에

책은 다른 공간과 다른 시대의 인간 뇌속으로

여행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지요.

독서를 통해 우리는 무한한 가상의 세계를 만납니다.

가상의 세계는 결코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 생성의 세계입니다.

용을 거쳐 그 일부만이 글로 정확하게 표현된다. 잘 짜여진 글은 스스로 생명을 획득하여 영원성을 갖게 된다. 영원성과 편집성을 갖게 된 글은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헌법으로 표현된 문장은 그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것이 바로 글의 힘이다.

사람들은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말하기 보다 더 빈번하고 자연스러운 작용은 또 무엇이 있을까? 바로 생각하기다. 생각하기는 혼자 속으로 말하기이다. 생각은 ‘생각나기’와 ‘생각하기’가 있다. 생각나기는 소음처럼 그냥 흘러 나온다. 생각나기는 자발적으로 생성되어 가는 방향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 긴 행렬은 생각이 생각을 불러와서 기억의 바다를 헤집고 다닌다. 다른 감각입력에 의해 주의가 분산될 때까지 기억을 무작위로 연결해서 생각들이 아지랑이처럼 피어 오른다. 반면 생각하기는 의도적인 기억탐색의 과정이다. 회상은 적절한 기억을 찾아가는 생각하기 과정이다. 연상작용은 생각하기에 의해 촉발된 이미지들의 연쇄적 흐름이다. 가상공간에서 무한한 자유도가 보장되므로 생각의 자발성과 분산성은 무제한적이다.

■ **말하기**는 **생각하기**의 부분집합이다.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잘 생각하는 능력의 일부이다.

■ **‘글쓰기’는 인간의 의식진화에서** 최근에 획득된 능력이다. 생각의 집약된 형태가 말이고 말의 집약된 형태가 글이다. 100번의 생각이 10번의 말하기로 축약되고 아마 한 번의 글쓰기로 응축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힘든 이유일 것이다. 말하기는 주로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표현하는 자동적 반응에 가깝고 글쓰기는 기억된 사건에서 의미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추론능력이다.

■ **생각하기, 말하기, 글쓰기**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 바탕이 궁금해진다. 이 세가지 능력은 모두가 몸 동작이 정교화 되어서 가능해진 진화된 운동성에서 생겨났다. 몸이 피곤하여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생각은 희미하고 애매한 상태로 간헐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말은 어렵고 글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 세 가지는 몸 상태의 종속변수이다. 정치한 생각과 일관된 논리가 형성된 후에야 글이 가능해진다. 결국 좋은 글은 면밀한 관찰력과 다양한 느낌을 갖는 기억이 필요하다.

■ **요약하면** 글쓰기는 관찰 훈련과 독서를 통한 기억이 바탕이 된다. 습관화된 세밀한 관찰과 광범위한 독서는 논리적으로 확장된 기억을 형성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재구성된 기억이 바로 글이 된다.

■ **몸의 운동성**을 생성하는 신경계의 진화는 인간에 이르러 생각과 언어능력을 산출했고, 그 언어의 가상성으로 인간문화는 다양성과 환경적응능력을 획득했다. 문자는 개개인 뇌 속의 가상세계를 서로 소통하고 통합해 주었다. 문자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독서인은 가상공간에서 모든 인류의 기억을 재료로 새로운 세계상을 구성하는 창조자이다.



글. 박문호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96년 美 Texas A&M 대학교 전자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불교TV에서 기획특강 ‘뇌와 생각의 출현’, ‘138억년 우주의 진화’ 등을 강연했으며, 저서로는 〈뇌, 생각의 출현〉, 박문호자연과학 세상(<http://www.mhpark.co.kr/>)을 운영하고 있다.